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역대 최대'

한국경쟁 134편 · 한국단편경쟁 1332편 · 지역공모 47편 출품 총 1513편 출품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올해 한국영화 공모에 총 1,513편이 출품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경쟁과 한국단편경쟁, 지역공모 세 분야의 한국영화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한국경쟁은 134편, 한국단편경쟁은 1,332편, 지역공모는 47편이 출품돼 총 1,513편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한국영화는 총 1,299편이 출품된 전년도 대비 214편(16.4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출품 수를 경신했다. 한국경쟁은 지난해보다 23편이 증가했으며, 한국단편경쟁은 191편이 더 접수됐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했던 국내 영화 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완벽히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계 역사상 신기록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한국영화가 출품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르별 출품 순위로는 극영화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한국경쟁 부분의 경우, 극영화가 105편(78.38%)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다큐멘터리 27편(20.15%), 실험영화 1편(0.75%)과 그 외 기타 장르 1편(0.75%)이 뒤를 이었다.

한국단편경쟁 또한 극영화가 1,058편(79.43%)으로 우세하고,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109편(8.18%), 실험영화 77편(5.78%), 다큐멘터리 58편(4.35%), 그 외 기타 장르 30편(2.25%) 순으로 집계됐다.

전주국제영화제 분석 프로그래머는 "한국영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모습

화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출품 편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든 여건 속에서 새로운 불씨를 띄우려는 영화인들의 강한 의지와 희망이 작품 안에 녹아있다"며 "분부하고 있는 모든 한국 영화인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한편, 앞서 발표된 국제경쟁 부분이 총 747편

으로 역대 최대 편수를 갱신한 바 있으며, 여기에 한국영화 1,513편을 더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 공모는 2,260편으로 최종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출품 편수인 1,903편보다 357편(18.75%) 증가한 수치다.

한국영화 출품 수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기대를 모으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1~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거리로 비롯한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극악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2024 판소리마당 '소리 판' 명창무대 특별공연을 진행한다. (사진=국립민속극악원 제공)

'소리 판' 완창무대 서막 연다

국립민속극악원, 17일 판소리마당 명창무대 특별공연

국립민속극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2024 판소리마당 '소리 판' 명창무대 특별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번 공연은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된 '소리 판' 완창무대의 서막을 여는 특별한 무대이다.

명창무대 특별공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수궁가 예능보유자인 왕기석 명창과 국가무형문화재 적벽가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이 출연한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되는 '소리 판' 완창무대에서는 판소리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며, 이 무대는 판소리의 매력을 애호가와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판소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기대된다.

김종현 원장은 "이번 명창무대는 2024 '소리 판' 완창무대의 성공적인 시작과 끝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판소리가 현대 문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 총서 제15권 출간

HK+연구단, '주체와 공동체' 1·2부로 나눠 총 6편 글 담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최근 연구 총서 제15권 '주체와 공동체'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의 1단계의 연구 과제 '유교가 한국문화 전통이라는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관념의 구성 및 실효성 과정, 그리고 근현대의 정치·경제적 담론에 코드화된 유교 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이어 2단계의 과제로 진행된 코드화되지 않은 유교 철학의 관념을 재발견해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위한 주체와 공동체를 탐색한 연구 총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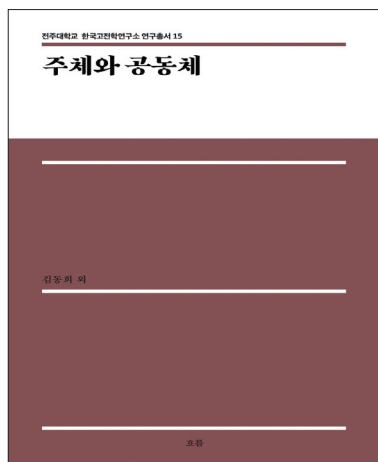
이에 따르면 이 연구 총서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6편의 글을 실었다. 6편 모두 직·간접적으로 근대 데카르트적 주체성의 지적 전통

과 진지하게 대면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대안적인 주체와 공동체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총서의 구성상 각 글의 강조점에 따라 '1부 주체'에서는 근대 의식 주체의 지적 전통을 비판적으로 소환해 대안적 주체를 제시하는 글 3편을 실었고, '2부 공동체'에서는 주체와 타자가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탐구한 글 3편을 실었다.

HK+연구단 변주승 단장은 "각 논문은 동서양 철학 전공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를 집적한 성과물로서,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의 야판다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 연구에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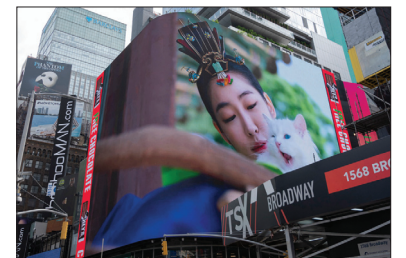
"세계에 한복 알리자"... 서경덕 '한복 챌린지' 진행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설 연휴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 교수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여러분들과 각종 SNS 상에서 '한복 챌린지'를 한번 더 추진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복 챌린지'는 자신이 잘 사용하는 SNS 계정에 어려웠을 때 입었던 한복,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명절에 입었던 한복 등 다양한 한복 사진과 영상을 게재하는 것이다. 해시태그로는 #Hanbok, #Korea, #HanbokFromKorea 등을 남겨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임을 소개하면 된다.

서 교수는 "중국의 '한복공정'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 누리꾼들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한복이 한국 전통의상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와 유학생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전 세계에 한복



한복 챌린지 (사진=서경덕 교수팀 제공)

을 홍보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류스타와 다양한 분야 셀럽들도 많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를 상영하고, '한복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